

kiri Weekly

2012.2.20 제170호

이슈

보험회사 약관대출의 특징 및 시사점

포커스

마이너스 금리 국채 발행 의미와 시사점

금융보험 해설

생명보험의 이해 2: 생존율, 사망률, 평균여명

국내금융 뉴스

2011년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해외금융 뉴스

북미 _ 오바마 대통령, 2013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유럽 _ 중국, 유럽에 대한 투자 급증

_ 포르투갈의 국가부채 비율 상승과 그리스에 대한 시사점

_ 프랑스, 금융거래세 도입 재확인

_ 그리스 의회, 구제금융을 위한 긴급(안) 승인

일본 _ 일본은행, 추가 양적완화 및 명시적 물가 목표치 제시

중국 _ 2011년 중국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8년래 최저치 기록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보험회사 약관대출의 특징 및 시사점

유진아 연구위원 / 이해은 연구원

요약

- 2011년 하반기 보험회사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가계대출 동향 집중 점검」 방침을 발표하면서 보험회사의 가계대출 증가 원인이 약관대출의 이용 편의성에 있다고 지적함.
 - 또한, 금융당국은 2012년 2월 현재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약관대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보험회사의 약관대출은 그 정의 및 특성상 보험회사의 부실 유발 가능성을 찾기가 어려우며, 동 서비스를 통해 보험회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가계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음.
 - 보험회사 약관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해약금을 담보로 하여 해약금의 70% 이내에서 대출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음.

- 약관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보험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은 보험계약 해지이나, 동 사태의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음.
 - 보험계약자의 약관대출 원리금 연체 시에도 1) 계속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증가하는 한편, 2) 계속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미납사유로 보험계약은 해지됨.
 - 또한, 보험료 미납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도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계약 부활을 신청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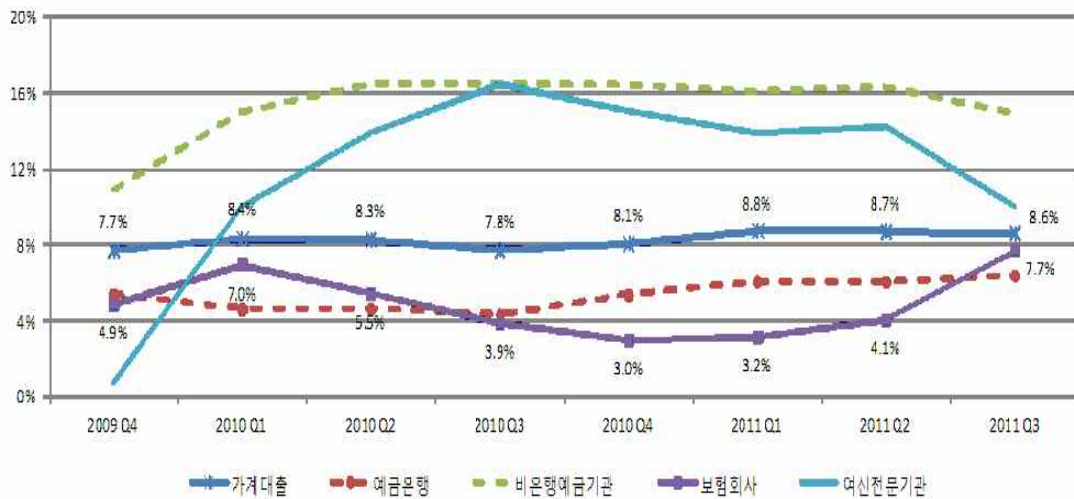
- 최근 경제성장을 둔화, 높은 물가상승률, 사회보험료 인상 등으로 가계의 부채상환 여력이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계의 고정자산 유동화 서비스라는 약관대출의 긍정적인 면이 가계부채 연착륙 차원에서 평가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우리나라 가계대출 규모는 2011년 3/4분기 전년동기 대비 8.6% 증가하여 약 841조 원에 달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경우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훼손되고, 그에 따라 경기침체도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¹⁾
- 가계부채 확대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행되면서 예금기관과 여신전문회사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다소 하락하였으나, 보험회사 가계대출 증가율은 오히려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함.
 - 여신전문기관 가계대출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2011년 3/4분기 10%로 나타나 2/4분기 증가율 14.3%보다 다소 낮아짐.
 - 보험회사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같은 기간 전년동기 대비 4.1%에서 7.7%로 상승함.

〈그림 1〉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주: 비은행 예금기관은 상호저축,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을 포함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 현대경제연구원(2011), 「가계부채발 복합불황 가능성」.

-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가계대출 증가에 대하여 2011년 11월 23일 「보험회사 가계대출 동향 집중 점검 방침」을 발표하고, 동 방침은 가계대출 증가가 야기할 수 있는 부실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함.
 - 금융위원회는 약관대출의 이용 편의성이 보험회사 가계대출의 증가 원인으로 봄.
 - 또한, 금융감독원은 2012년 2월 현재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약관대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주요 실태점검 항목으로는 약관대출에 따른 보험회사의 건전성 훼손 및 약관대출 이행과정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등임.
- 본고는 보험회사 약관대출의 잠재적 부실 가능성과 이로 인한 보험소비자 피해 가능성 등을 살펴본 후 약관대출의 긍정적인 면도 함께 검토하고자 함.

2. 보험회사 약관대출



- 보험회사 가계대출 내용을 살펴보면 약관대출이 보험회사 전체 가계대출의 약 61.1%(2011년 9월 기준)를 차지하였으며, 최근 1년(2010년 9월~2011년 9월) 동안 3.5조 원이 증가하는 등 약관대출이 보험회사 가계대출의 주요 대출종목인 것으로 나타남.
 - 주택담보대출은 2011년 9월 보험회사 가계대출의 약 3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1.9조 원 증가함.

〈표 1〉 보험회사 가계대출 추이

(단위: 조 원)

	'10년 3월	'10년 6월	'10년 9월	'10년 12월	'11년 3월	'11년 6월	'11년 9월
가계대출	60.8	60.7	61.2	62.1	63.0	63.8	66.8
- 약관대출	36.2	36.8	37.3	38.1	38.5	39.3	40.8
- 주택담보대출	19.4	18.8	18.8	18.9	19.5	19.4	20.7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 약관대출은 신용공여 또는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선지급금으로 보는 두 가지 견해가 혼재되어 있으며, 각각의 시각에 따라 보험회사 가계대출에 대한 평가도 달라짐.
 - 약관대출을 신용공여의 한 유형으로 판단하는 경우 동 대출을 가계대출의 부실화 우려 연장선상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약관대출을 선지급금으로 판단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보호 측면에서 약관대출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약관대출을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에 대한 선지급금으로 정의하면 동 대출서비스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금융자산에 대한 유동화 서비스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최근 약관대출 관련 규제도 주로 서비스 이용 편의성 및 공정성 제고를 통한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둬.²⁾
 - 약관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는 유동화 서비스에 대한 가격으로 해석되는데, 2010년부터 동 금리에 대한 산출방식이 ‘예정이율+가산금리’로 표준화됨.
 - 또한, 보험회사별 약관대출 금리가 공시항목에 포함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약관대출에 대한 최저 및 최고 금리, 가산금리 등이 공시됨으로써 공정성도 제고됨.

〈표 2〉 약관대출 금리 공시내용

(단위: %)

종류	상품구분	가산금리	약관대출금리		기준일	비고
			최저금리	최고금리		
생명보험	금리연동	1.5~2.5	2.8~6.1	4.5~ 9.0	2012.1.1	최고금리 예외상품 등
	확정금리	1.5~3.2	4.5~7.5	6.0~13.5		
손해보험	금리연동	1.5~3.0	4.7~6.1	6.1~ 8.5	2012.1.31	예외조항 등
	확정금리	1.5~2.0	4.5~6.0	6.0~10.0		

자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약관대출은 보험회사가 약관계약상 이행해야 하는 하나의 의무사항이며,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시됨에 따라 약관대출을 해약환급금에 대한 선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
 - 약관대출을 신용공여로 간주할 경우 약관대출 연체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선지급금으로 분류되면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음.
 - 동 판결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010년부터 약관대출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함.

2)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0), 「보험계약대출 안내강화 등 개선방안 추진」.

3. 보험회사 약관대출의 위험 요인



- 가계대출이 우리나라 경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가계부실이 금융기관 부실을 야기할 가능성 때문인데, 약관대출의 경우 보험회사 부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없음.
 -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회사의 채무가 일정 부분 대출채권으로 상계되기 때문에 약관대출 부실이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은 없음.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재부실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음.
-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서비스는 약관대출, 신용대출,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는데, 대출절차와 대출금리 측면에서 약관대출이 다른 대출상품보다 가계에 유리함.
 - 주요 보험회사의 대출상품별 금리를 비교한 결과, 약관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는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보다 낮고 부동산 대출보다 다소 높게 적용되고 있음(〈표 3〉 참조).
 - 약관대출은 가계가 보유한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대출절차가 부동산 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보다 간편함.

〈표 3〉 주요 보험회사 대출금리(2012년 1월 말 기준)

(단위: %)

구분	약관대출		신용대출		부동산대출	
	확정금리	금리연동	확정금리	금리연동	확정금리	금리연동
대한생명	5.5~11.0	5.1~9.0	8.1~16.1	-	4.8~7.3	4.4~6.7
삼성생명	5.7~10.5	4.8~6.6	7.9~14.9	-	4.9~6.6	4.6~6.4
교보생명	6.3~10.5	5.3~7.8	-	10.9~15.9	-	4.2~(국채연동) 5.3~(회사채연동)

자료: 생명보험협회, 각 사 홈페이지.

- 약관대출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는 보험소비자 피해 사항은 약관대출로 인해 보험계약이 실효되고, 그 결과 가계가 위험관리에 실패하는 경우인데, 동 사태의 발생 가능성도 매우 낮음.
 - 가계의 소득수준이 악화될 경우 약관대출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계속보험료 납입 연체도 발생하고, 보험료 납입 연체에 따른 해지가 발생함.

- 즉, 보험계약 해지가 약관대출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음.
 - 또한, 가계가 약관대출 이자는 연체하더라도 계속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이 증가하여 약관대출 연체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가능성은 매우 낮음.
- 더욱이, 가계가 소득 감소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내에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계속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도 보험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해지된 후 2년 이내에 보험계약 부활을 청약할 수 있음.
 - 보험회사가 해당 계약 부활을 승낙한 후 보험계약자가 연체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모두 납입하면 해당 계약은 부활됨.

4. 결론 및 시사점



- 가계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한 최선의 환경은 가계소득 증가를 통한 원리금 상환이지만,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물가상승률이 높으며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도 인상되고 있어 가계의 부채상환 여력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한국은행은 2012년 우리나라 경제전망치를 4.0% 성장에서 3.7%로 하향 조정하였고, 소비자물가지수는 2011년 말 4%대를 유지하고 있음.
 - 또한, 직장인 건강보험료도 2012년 2.8% 인상될 예정임.
- 우리나라 가계 대부분은 거주주택을 마련하거나 생활비를 조달³⁾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가계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유동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임.
-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연착륙 유도 방안 마련 시 이러한 보험회사 약관대출의 긍정적인 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KIRI**

3) 통계청, 「2011년 가계금융조사 결과」.